

## 물 걱정, 한 숨 돌렸다

환경부, 댐 간 연계 운영으로 광주·전남 생활용수 124일분 확보  
가뭄 대책 효과 ... 동북댐·주암댐 고갈 시기 5월→연말로 늦춰

### “시·도민 지속적인 물 절약을”

가뭄으로 '상수원 고갈' 위기에 직면했던 광주·전남이 한숨을 돌렸다.

당초 오는 5월로 짐작됐던 광주·전남지역 주요 댐의 고갈(저수위 도달) 시기가 올해 말로 늦춰졌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이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댐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북·주암·수어·평립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가 올해 말로 늦춰졌으며, 섬진강댐 또한 인근 수원에서 농업용수를 대체 공급하면서 저수위 도달 시기가 7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이해 댐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200년에 한 번 오는 수준으로 적은 극한 상황까지 가정해 분석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가뭄대책을 시행해 총 1억 1900만㎥의 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광주·전남 생활용수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감량하고, 댐 간 연계 운영을 통해 물을 절약했다는 것이다.

주암댐의 경우 지난해 3월 평균 130만㎥의 물을 공급했지만 현재는 1일 공급량이 100만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9400만㎥의 물이 절약됐다. 발전전용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2500만㎥의 물을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기도 했다.

산업단지의 공장 정비시기를 조정해 물 수요를 관리하기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이수·광양 산업단지에 입주한 3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공장 정비시기를 앞당기기도 했다. 공장을 정비하는 기간에는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게 돼,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지난 2월까지 33만㎥의 물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 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환경부는 영산강 하천수 취수 등 다양한 가뭄 대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먼저 광주 지역에서는 하천수를 하루 5만㎥씩 용연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광주·전남 상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난 2일부터 영산강 중류 지역에서 매일 3만㎥의 물을 용연정수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동구 소태동 원지교 부근에 더 강한 펌프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을 5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민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인 45만㎥의 11% 수준이다.

또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여수·광양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절감을 통해 총 322만㎥의 물을 절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극단적인 가뭄이 이어질 경우 저수위 아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댐의 가장 밑부분에는 퇴적물 등이 쌓여 있어 보통 사용하지 않는 '비활용용량 물' 일명 사수(死水)가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댐 밑부분에 비상 방류구가 있는 댐에서는 저수위 아래 물을 취수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비상 방류구가 없는 경우에는 펌프시설이 설치된 배를 띄워 취수구 쪽으로 댐의 밑부분 물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가뭄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북댐의 저수율이 19%, 주암댐의 저수율이 20%인 상황이다”며 “여름에 댐을 채워 가을·겨울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올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환경부는 29일 광주·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행암동에 있는 덕남정수사업소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한민국이 주최할 것” 한·미정상 공동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한미 정상이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미국 정부도 한국이 이르면 내년께 예상되는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2021년 이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며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을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연남수

“전두환 재산 끝까지 찾아내 추징금 환수” ▶ 6면

호남 태양광 출력 제어... 지역민 강력 반발 ▶ 9면



KIA 장정석 단장 해임... 개막 앞두고 초비상 ▶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광주·대구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본격화

### 대한체육회에 개최계획서 제출

### 두 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 도시인 광주와 대구시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본격화한다.

광주·대구시 체육회는 29일 “대한체육회를 방

문해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도시는 이날 개최 계획서와 함께 요약 보고서, 유치 희망 도시 여행 각서, 시설물 사용 허가서, 공동유치 업무협약서도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지 실사,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 도시를 확정하게 된다.

개최도시 선정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현지 실사를 받게 된다.

광주와 대구시는 2021년 5월 서울 국회에서 광주·대구 공동유치 선언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대구 실무협의회

를 가동했다.

이어 유치준비위원회 출범, 100만 달빛 서명 캠페인 공동 추진, 기반 조사 및 경제효과분석 공동 연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개최 계획서를 완성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유치를 통해 양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로 양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